

I 수입제도 변경사항 및 수출현안

1. 아랍에미리트연방, 올 4분기부터 물담배(시샤, Shisha)를 포함한 담배 제품에 대해 새로운 소비세 부과제도 시행

- UAE 연방 세무국(Federal Tax Authority, FTA)은 올해 4분기부터 물담배에 소비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
- 일반 담배는 2017년 10월부터 100%의 소비세 부과 대상이었으나 물담배에 대한 과세 조치는 이번이 처음
- 세무 당국은 아래와 같이 담배에 대한 소비세 부과 절차를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
 - 1단계(2019년 초) : 모든 유형의 국내 생산 및 수입 담배의 포장에는 소비세 납부를 인증 하는 특수 **디지털 인장**을 반드시 마킹해야 함
 - 2단계(2019년 5월) : 디지털 인장이 마킹되어 있지 않은(소비세 납부가 인증되지 않은) 담배 제품의 **수입을 금지**
 - 3단계(2019년 8월) : 디지털 인장이 마킹되어 있지 않은(소비세 납부가 인증되지 않은) 담배 제품의 **판매 전면 금지**
 - 4단계(2019년 10월) : **물담배에도 디지털 인증제도 시행 및 소비세 징수**
- FTA의 이번 조치에 따라 모든 담배 생산 및 수입 업체들은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기에 앞서 반드시 제품 포장에 디지털 인장을 마킹해야 함
- FTA는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담배 거래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, 유통되는 담배의 정확한 수량과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*출처 : 2019. 2. 18. Gulf Business

<https://gulfbusiness.com/uaes-new-excise-tax-tobacco-scheme-apply-shisha-q4/>

2. 터키, 식량난으로 인한 ‘Shrinkflation*’ 으로 고통

*Shrinkflation : 물건값은 이전과 똑같으나, 제품의 크기나 무게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단위 크기당 또는 중량당 물건값이 오르는 현상

- 터키의 식품 가격은 지난 1월,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%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고, 정부는 불공정하게 식품 가격을 상승 시켜 시장을 교란시키는, 이른바 ‘식량 테러’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식품 가격 안정화에 노력을 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터키 정부는 식량 가격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국내 식품 유통 업체들의 판매 가격을 통제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식품 유통 업체들은 판매 가격을 올리기보다 제품의 크기 또는 무게를 감소하여 제품의 단위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취함
- 예를 들어, 100g의 초콜릿 바가 동일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지만 실제 중량은 80g으로 줄어들고, 외식 업계 또한 1인분의 양을 줄이는 등 정부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의 사회적 부작용을 발생하는 중
- 많은 전문가들은 터키 정부의 이번 식품 가격상승 억제 정책이 큰 실수이며, 현 상황에서 식품 가격 상승을 피할 수는 없는 다른 근본적 해결책을 촉구

*출처 : 2019. 2. 27. Ahval

<https://ahvalnews.com/turkey-inflation/turkey-suffering-shrinkflation-food-costs-rise>